

히딩크의 대업과 민심

김 강 석 / SBS 편집부 차장

지난 6월은 월드컵의 달이었다. 48년만에 월드컵 첫 승을 거머쥐었고 그렇게 염원하던 16강 진출은 물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세계 4강이라는 전무후무한 대업을 우리 대표팀이 이루었다. 실로 단군 이래 가장 큰 국민적 감격이 아닐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값진 경험도 얻었다. 언제 국민통합과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 있었던가 되돌아 보면 각본없고 감독도 없었던 한편의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가장 중심에 섰던 인물은 두 말할 것 없이 히딩크 감독이다.

국민적 드라마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인 히딩크 감독에 대한 찬사는 한국의 대권 후보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했다.

히딩크 감독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의 의구심의 대상이었다가 불과 몇달 사이 월드컵을 통해 한국민의 영웅이 된 것이다. 히딩크가 영웅일 수 밖에 없음을 뒷받침하는 갖가지 논리들도 등장했다. 히딩크 경영학, 히딩크의 철학, 히딩크의 독심과 배짱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논리를 전파하는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초만 해도 반 히딩크의 선봉에 섰던 이들이라는 점이다. 히딩크 감독이 주전을 정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체력단련에 힘을 쏟을 때 이들은 아직도 한국 축구를 모른다며 히딩크 감독을 비판했다. 당시엔 한국대표팀이 국가 평가전 등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월드컵 개막에 즈음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 등 세계 수준급 팀을 격파하거나 우세한 경

기를 벌이자 이 비판은 긍정론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월드컵 4강을 이뤘을 때는 마침내 더 이상 형용하기 어려운 찬사로 변했다.

한국축구의 문제점과 맹점을 간파해 한국 축구를 환골탈태시킨 명장으로 영원히 한국민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라는 히딩크 감독에 대한 찬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과에서 기인한다.

민약 한국이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루지 못했다면 히딩크 감독에게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을 것은 자명하다. 한국 축구는 일찌기 박종환 감독이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4강의 위업을 이뤘을 때 보았듯이 베스트 멤버를 일찌감치 구성해 스파르타식으로 강훈련을 시켜 철저히 조직력으로 밀어부쳐야 16강 언저리나마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식의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월드컵을 한 번 냉정히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결과는 모든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무망하고 일종의 거짓 수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와 우리 대표팀이 거둔 성과는 너무나 거대한 것이어서 결과나 과정을 냉정히 따져보는 최소한의 이성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예외는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하려고 신이 만들어 준 비상구인 셈이다. PPFK